

남원·고창 150억 투입 농촌공간재생 본격화

도 농식품부 '공간정비' 공모 선정
국비 70억 포함 5년간 사업 추진
남원 융복합단지·고창 환경 개선
청년정착 기반 농촌활력 회복 기대

70억 원을 포함해 남원 110억 원, 고창 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오염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는 한편 정비된 공간을 생활시설이나 쉼터 등으로 재생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남원시 대산면 수덕·금성지구는 '특화 지구형'으로 선정돼 농촌융복합산업과 정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덕지구에는 가공·체협·교육·창업 기능을 갖춘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

고 인근 금성지구에는 폐공장·폐창고 등을 정비해 체류형 공간과 힐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과 창업 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창군 대산면 사거지구는 '일반형·정비형'으로 방치된 폐교와 폐축사, 폐건물 등을 철거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철거 부지에는 공공주차장과 농업인 쉼터를 조성하고, 폐교 부지는 향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 유입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본격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북이 농촌 재생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방산소재 밸류체인 가동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도전

한화·현대로템 등 16개 기관 참여
방산 밸류체인 업무협약 체결
R&D 협력 방산 공급망 내재화
클러스터 공모 추진 기반 확보

전북도는 30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국방 첨단복합소재·부품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키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시,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혁신기관과 HS효성첨단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16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방 극한·특수 소재·부품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복합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 협의 등이다.

협약식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방안이 발표됐으며 탄소소재의 무기체계 적용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진 의견 청취에서는 기업·기관의 기술을 방산 현장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

력 방향이 논의됐다.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HS효성첨단소재 등 첨단복합소재 분야 핵심 기관과 기업이 집중돼 있고, 10여 년간의 투자로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방위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일 현대로템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하며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첨단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플랫폼을 조성해 전복을 첨단소재 전략물자 핵심 공급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오는 31일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이 클러스터 지정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약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향후 대규모 투자와 앵커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북 방산 첨단복합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방 첨단복합소재·부품 산업 밸류체인' 구축 위한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HS효성첨단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민주당, 25조 추경 '속도전' "내달 9일 본회의서 빠르게 처리"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여야 합의한 법안 위주로 통과

민주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강현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 "당초 다음달 12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경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을 처리하겠다"며 "31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보고와 함께 환율 3법, 산재보상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을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위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의 건수 등은 원내 협상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31일 본회의에서 공식인 국회 상임위원회 4명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道, 농어업·농어촌위원회 개최...민관학 농정 거버넌스 가동

첫 회의 열고 농어업 현안 총점검
쌀 수급·면세유 등 부담 완화 논의
농촌인력·기본소득 추진 공유

기반 농정 거버넌스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전문성을 결합해 농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최낙진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운영협의회에서 사전 논의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농정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년 정부 양곡 공급을 통한 쌀 수급 안정 ▲면세유·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안정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농촌 인력지원 체계 구축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논 하계 조사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또 2026년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농생명축산분야 정책연구 계획안에 대해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실장의 보고가 진행됐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구축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육성 전략 △동물웰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장정철 기자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달래줌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기부의 효능
맛은 위의 기운 명파에 하고
근육을 지으며 육을 이음하 때
기운을 통으로 인정을 세기한다.
또한, 크화기명을 가진
이안사정의 탐구자에
승리코명의 통통한 약재야.

- 황희보안 정리 토담 중에서

<p>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p>	<p>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하면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담례품 지급</p>	<p>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단체)</p>
<p>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지부장 강대연</p>		
<p>김제농협 조합장 이정용 궁덕농협 조합장 문용수 김제원협 조합장 김광식</p>	<p>백산농협 조합장 강원구 진봉농협 조합장 임영택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김창수</p>	<p>용지농협 조합장 김용 동김제농협 조합장 최진오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심재원</p>
<p>백구농협 조합장 장승환 금산농협 조합장 최복순</p>	<p>금만농협 조합장 최승운 광활농협 조합장 임영운</p>	

전북도, 노인맞춤돌봄 신규 인력 전문성 강화

생활지원사 82명 현장 적응 교육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역량 강화 현장 사례 중심 실무 교육 진행

춤추는 노인 돌봄체계 구축 속도

전북도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춤추는 돌봄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올해 신규 생활지원사 82명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하는 돌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지원기관은 신규 생활지원사의 사업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이해 ▲생활지원사 역할 및 직무 ▲현장 사례 중심 컨설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중심으로 변화된 제도와 현장 적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노인 퇴원환자 대상 단기 집중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생활지원사들이 제도 변화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의 현장 적응을 돕고, 어르신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



<사진=전북도>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

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을 아름답게, 도민을 웃음 짓게 하기를”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 축하메시지



황인호 무주군수

전북타임스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북타임스가 있기에 든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사실'을 대 표하는 언 론으로서

“전북을 아름답게, 도민을 웃음 짓

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늘 도민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일선에서 뛰시는 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대안적 참언론을 지향하며 굳건하게 지켜온 15년이라는 시간은 지역사회가 전북타임스에 보내는 '신뢰'이자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스포츠 등 사회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정보

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도를 걸으며 균형감을 잃지 않는 전북타임스가 있기에, 언론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전북타임스가 있기에 든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사실'을 대 표하는 언 론으로서

“전북을 아름답게, 도민을 웃음 짓

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늘 도민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일선에서 뛰시는 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대안적 참언론을 지향하며 굳건하게 지켜온 15년이라는 시간은 지역사회가 전북타임스에 보내는 '신뢰'이자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스포츠 등 사회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정보

이 의원은 “전북 도민들이 느껴온 상실감이 컸던 만큼,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끝내고, 전북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프로야구 11구단과 복합

돌봄구조가 전북의 일상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전북 프로야구 유치하고 돐구장 건립”

“쌍방울·KCC 이후 상실감 회복” 전북 연구 프로야구 11구단 창단 돐구장·복합개발 경제 구조 전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30일 “(전북연구)프로야구 11구단 창단과 복합 돐구장 건립을 통해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고, 일상과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을 연구로 한 쌍방울 프로야구단 해체와 KCC 농구단 이적 이후 전북 도민들이 겪어온 상실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우리 도민들은 우

리 팀’을 잃은 채 타 지역을 바라봐 왔다”며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고 함께 환호하던 일상이 사라진 현실은 전북의 문화와 경제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형 프로야구 11구단 창단하겠다”며 “전북 기업이 투자하고, 전북이 기반을 만들고, 도민이 키워가는 진짜 우리 팀을 만들겠다. 더 이상 전북 도민들이 타 지역 팀을 응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야구 11구단 유

치는 단순한 스포츠팀 창단이 아니라,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범 도민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잃어버린 전북을 다시 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합 돐구장 건립하겠다”며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문화와 공연을 위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야구와 공연, 전시, 국제행사가 결합된 365일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공연과 대형 이벤트는 전북에서 개최해 더 이상 서울로 가지 않아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생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돐구장과 연계한 복합 개발 계

획도 있다”며 “경기 관람, 공연, 쇼핑, 외식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류형 공간을 조성해 도민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전북 안으로 되돌려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전북 경제 구조를 바꾸는 프로젝트”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취임 300일...靑 ‘참여형 홈페이지’ 공개

취임 300일 맞춰 서비스 개시 정책제안 등 참여형 기능 확대 사전정보공개 신규·투명성 강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0일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며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국민이 직접 국정의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정식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는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생활 속 공감정책’ 등이 신설되었다.

또 국정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해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든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도 구축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이후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道, 비상경제 TF 가동...면세유·물가 대응 강화

3차 회의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 물가·에너지 등 4대 분야 점검 17억 투입 면세유 상승 40% 보조

전북도가 30일 농어업용 면세유 부담 완화 등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석유가격 안정 ▲수출 기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생활물가 등 4대 분야의 현황

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의제로는 수출기업의 물류비·환율·납기 부담 증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쓰레기 규격부투 사제기, 식품 포장재·일회용품 등 생활 밀접품목의 시장 불안 조짐이 다뤄졌다. 시설재 농가의 에너지 비용 문제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되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농어업 면세유는 전정 발발 이후 최고 22%까지 치솟았다가 최고가 억제 시행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4월 들어 휘발유·경유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근해 어선의 조업 위축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어업 면세유 가격안정 사업에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격상승액의 40%를 보조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어업 분야에서는 추경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한편, 군산·부안·고창 등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 합동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농협주유소를 통해 전국 250억 원, 전북 32억 원 규모의 농어업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과 도민 생활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기 기자

SJ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영건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 등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기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청년후계농, 2030세대, 우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임대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청년후계농(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기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장 10년간 임대 및 판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력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KR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원당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사업추진 '물꼬'

상위계획주민 의견 충돌 난항 시, 끈질긴 노력 끝 하천기본 계획 변경 '조진부 승인'

전주시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8년 만에 상위계획 변경으로 행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는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원당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안)이 '조진부 의결'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사업이 확정돼 이듬해인 2019년부터 설계에 착수했으나, 상위계획인 원

당천 하천기본계획과의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계획은 전주천 합류부 인근의 복개암거를 철거하고 개거(뚜껑이 없는 수로)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원당천 인근에 대성동 한옥마을을 주차장이 조성돼 매월 2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에도 매월 2000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들은 만약 기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암거를 철거할 경우 시내버스와 대형 차량의 진

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해 극심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당초 정비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년째 사업이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로변경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기존 복개암거를 철거하는 대신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확대 재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시는 이를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와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마침내 변경안 승인 결정이 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의 법

적·행정적 걸림돌이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번 심의의 조건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보상계획공고/하천공사시행계획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유인환 전주시 하천관리과장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드디어 사업 추진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사고 '역사 교육의 장' 탈바꿈

'한지를 품은 전주사고 이야기' 매주 토요일 상설운영

대한민국 대표 역사 자산 전주사고(全州史庫)가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28일 전주시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교육·해설 프로그램 '한지를 품은 전주사고 이야기' 상설 운영에 돌입했다.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켜낸 전주사고 역사적 가치와 기록 매체인 전주한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배우들의 만담과 한지 인형극이라는 극 형식을 도입해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주사고는 두 명의 배우가 한지 인형을 활용해 실록을 정기적으로 말리고 점검하던 '포쇄(曝曬?)' 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야기에 만담 통한 전주사고와 조선왕조실록의 세계적 가치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한지를 품은 전주사고 이야기'는 오는 5월까지 매주 토요일(14시와 15시) 운영된다. 나아가 시는 나들이하기 좋은 6월과 9월, 10월에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그램은 전주 방문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한지'-진주시 '실크' 고유문화 융합 공동 발전

양 도시 축제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시-진주시'가 전통 자산 융합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30일 전주시청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도시의 고유문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도시 성공 모델을 함께 창출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양 도시는 △문화도시 간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 △특화 문화 자원 활용 물자·인적 교류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사업체 간 상호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양 도시는 협력 사업으로 대표 전

통 자산인 '전주 한지'와 '진주 실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진주 실크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전주단오' 축제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다.

진주시는 전주 한지로 대형 유등을 제작하고 이를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전시할 예정이다.

양 도시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축제

브랜드까지 상승 ▷관광객 공동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보다 큰 경제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양 도시는 협력 통한 관광 문화 플러스로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앞둔 한지 우수성 등 전통문화 산업화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디딤돌 발판으로 내다봤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 '교통순찰대기동대' 투입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보행자 무단횡단 대응 강화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교통사망사고 선제적 차단을 위해 전북 전역에 교통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를 집중 배치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초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완주와 군산 지역에 싸이카, 암행순찰, 기동대 등 교통 경력을 우선 배치해,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보행자 무단 횡단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 전년 대비 월별 교통사망사고 1, 2월 증가(+2,+3)에서 3월 감소(-2)로

전환 이번 주와 다음주는 김제와 정읍 지역으로 배치 구역을 확대해 봄 행락철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고강도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봄철에는 야외 활동량과 차량 통행량이 동시에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교통순찰대와 기동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민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변화 조사

2010개 표본가구 대상 사회조사 실시

전주시가 정책수립 활용 위한 현재의 시민 생활 만족도, 사회적 관심사, 변화된 생활상 등을 조사한다.

이에 시는 전주지역 2010개 표본가구 대상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통합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29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에 대

한 △주관적 만족도 △사회적 상태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주시 사회개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표본 추출된 완산구 1020가구와 덕진구 990가구 등 총 20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총 61명(조사관리자 6명, 조사원 45명, 전산입력원 1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된다.

조사 방식은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

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병행하며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9개) △건강(6개) △사회통합(13개) △안전(6개) △환경(3개) △가구·가족(8개) △특성 항목(16개) 등 총 7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성 항목에는 전주시 맞춤형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예산 수요, 전통시장 이용 실태 등

의 지역 특화 문항이 포함돼 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전산 처리돼 응답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시는 조사 완료 후 오는 5월 중 입력 및 내용 검토를 진행하며, 통계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조사 결과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지역기반 가상융합서비스 제작·실증' 수행기업 모집

'전북 특화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년 지역기반 가상융합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수행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전북도내 지자체 정책 수요 및

산업 현안을 가상융합 기술로 해결하며 직접 검증(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흥원은 △지정 과제 2개사 △전북 특화 분야 1개사 △지자체 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북 지역 지자체 및 수요기관과 연계해 제작된 콘

텐츠를 의무적으로 실증해야 한다.

주요 실증 지자체는 전주시와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임실군으로, 지역 특화 자산과 기술의 결합이 기대된다.

대상은 전북도내 사업자를 보유한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 또는 컨소시엄으

로,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약 7000만 원 지원금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고용 창출과 기술 고도화, 네트워킹 등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체납 ZERO 체납액 특별징수' 돌입

6월 1일까지 총 71억 강력 체납징수

전주시가 "체납은 없다,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체납 ZERO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71억원(지방세 42억원, 세외수입 29억원) 징수 목표로 강력 체납징수 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간 모든 시 세입부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촉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

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체납 규모 및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정소민 기자

더불어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 활동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추진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전북권역 등 총 15개 수도사업자 대상으로 '2026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수도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수도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설별 운영 자료에 대한 '기본평가'와 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 등에 관한 '일반 분야', 정수시설 및 상수도관망의 운영실태,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등에 관한 '운영·관리 분야', 정부 정책의 이행 노력 등에 관한 '정책 분야

등 총 3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상수도 데이터 연계율 △정수장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가점 지표에 새롭게 반영해 수도 운영 데이터 관리를 강화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기후부·환경청 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순위를 확정한다.

순위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연말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또 그룹별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포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관광객 향한 특별 '여행자라운지' 운영

관광객들의 새로운 쉼터 외국인 공간·공예품 전시·영화 상영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한 여행자라운지가 전주 구도심 공간에 문을 열었다.

30일 전주시는 '고사동 여행자라운지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여행자라운지는 그동안 한옥마을에 집중됐던 관광객 발길이 영화의 거리까지 이어지도록 전주영화제작소 1층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이 곳에는 △안내소 △라운지 △공예품 전시공간 등 마련되며 찾는 시민 그리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여러



서비스 제공 등이 준비되어져 있다.

특히 '고사동 여행자라운지'는 개소식

을 시작으로 관광객들에게 안내소 기능을 넘어 새로운 쉼터 공간으로도 활용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다.

공간에는 외국인 여행객 독서 위한 외국어 서적 비치 및 전주시 공예품 전시공간과 대형 LED 영상시설 등도 갖추고 있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볼거리와 쉼 거리가 있다.

나아가 여행자라운지 4층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독립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전주시를 방문하는 영화사랑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소식 자리에는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시의원,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광 분야 기관·단체장, 인근 상인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

국민안전확보 공로 인정...취약시기 안전 사고 예방 기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부문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가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수여되는 정부 최고의 포상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노후 전기설비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감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폭염과 장마 등 계절적 위험요인 증가에 대응해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변지역 안전점검 △노후 전기설비 시설개선 △맞춤형 전기안전 컨설팅 등 전기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안전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체감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AI 기반 전기안전 기술 도입과 지역사회 협력형 안전관리 확대 등을 통해 재난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딸기 체험 행사성료

지역 농산물 우수성 알리기와 함께 딸기 생육 과정과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으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이들의 딸기 체험 경험에 큰 즐거움을 느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항상 마트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이번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은 오늘부터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BM)을 창출하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신규와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 부문에서는 15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5천만원, 고도화 부문에서는 25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전북농협' 전북농업 경쟁력 강화 협업

수출·스마트 농업·축산 전 분야 협력 확대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농촌진흥청(청장 이돈승)과 함께 '농촌진흥청-전북농협 업무협약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6년 협력과제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기존 협약사태 발표,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회의를 통해 △수출 농산물 저장 기술 연구 △APC 현장 컨설팅 추진 △전북 특화형 신소득 원예작물 발굴·육성 △저탄소 농업기술 지도·지원 확대 △중소규모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협력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교

육·홍보 협력 등 총 8개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실의형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반기별 정기 점검회의와 과제별 담당자 중심의 수시 협력 체계를 병행해 협업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연구성과는 현장으로, 협력성과는 농업인에게' 슬로건과 함께 2026년 전북 농업 현장 중심 협력과제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전북농협의 현장 조직 역량이 결합되면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협력을 더욱



<사진=전북농협>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실시

8월 31일까지 접수...“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제14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당신의 연구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공모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으며

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공모분야는 △연금제도 △재정주계 △기금정책 △연금개혁 등 4가지이며, 국민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https://institute.nps.or.kr) '연구과제 제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다.

심사는 △1차 실무진 심사 △2차 위원

회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2차 심사기준은 △연구영역과의 부합성 △정부정책 및 학술적 기여도 △의의성 및 시급성 △독창성 및 창의성 △타당성 등 5가지다.

선정된 우수작은 9월 28일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에 발표된다.

1차 심사 통과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최종 우수작 제안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바이오진흥원 '수원 메가쇼 시즌1' 참여

전북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 수도권 시장 진출 위한 전북공동관을 '2026 수원 메가쇼 시즌1'에서 운영했다.

'2026 수원 메가쇼 시즌1'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도내에서는 전통식품 및 해양수산물 분야 기업 18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와 시식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며 현장판매 1억2834만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공동관은 '전북미식 삼시세끼', '갯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 슬로건과 함께 신선한 원재료와 지역 특색 강조한 콘텐츠 등을 선보였다.

전북바이오진흥원은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북 식품의 품질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관람객 만족도를 높였다.

분야별로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참가한 8개사가 총 5143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외 익산농협 떡방앗간(생크림 찰쌀떡), 남양에이치앤비(약과), 밥강도(냉동수산물) 등이 높은 매출을 기록해 전북 전통 가공식품 지력을 보였다.

또 전북 해양수산물 창업투자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10개사가 총 7691만원 성과를 거뒀다.

군산엘로우푸드(박대, 오징어), 이고장식품(간식류 죽류 및 국거리), 식도

전북TP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전북도 농건설계기 산업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 수출 전략 그리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분사 또는 공장 둔 중소·중견 농건설계기 기업 중 총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36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 맞춤형 연구지원 △시제품 제작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인증 취득 △글로벌 전시회 △상당회 참가 △해외 판로개척 △A/S 엔지니어 교육 △해외 운송 지원 등 수출 고도화 지원이 포함된다.

한편 '26년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4월 15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문약제 살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돈승)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기에 예측 정보에 따라 전문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궤양에서 율동한 병원균이 사과, 배 개화기에 방화곤충 등에 의해 꽃으로 옮겨져 발병한다.

제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부 농가에서는 약해를 우려해 개화기 약제 살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화기에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포함된 항생제를 고농도로 살포하면 잎끝이 노랗게 변하는 약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농진청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서 개화기 방제 방법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최저기온이 3도 이하인 날에는 물

2026 로스쿨 합격자, 전북권 출신 형편없어

22개 로스쿨 합격자 1856명 중 서울대고려대 연세대출신 1090명

2026학년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체 합격자의 60%가량이 '서연고(SKY)' 학부 출신에 집중

된 반면, 전북 지역 대학 출신 합격자는 1.4%에 그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극심한 격차인 배출 격차가 확인됐다.

3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전국 22개 로스쿨 출신 대학 및 학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출신 대학을 공개한 전체 합격자 1856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1090명(58.7%)으로 집계됐다. 서울대(23.1%), 고려대(20.2%), 연

세대(15.5%)에 이어 성균관대(7.7%)와 이화여대(4.0%)를 포함한 상위 5개 대학 출신은 전체의 70.4%를 차지해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전북 지역 대학 학부 출신 합격자는 극소수에 머물렀다.

도내 대학 출신 합격자는 전북대 19명(1.0%), 전주교대 4명(0.2%), 원광대 3명(0.2%), 우석대 1명(0.1%) 등 총 27명이

다. 각 로스쿨이 자교 학부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에서도 지역 편차가 컸다.

서울권 12개 로스쿨의 자교 출신 평균 합격 비율은 33.1%에 달했다.

반면 도내 로스쿨인 전북대는 전체 합격자 88명 중 자교 출신 10명(11.4%)을, 원광대는 62명 중 3명(4.8%)을 선발하는 데 그쳐 전국 지방권 평균(7.5%) 안팎에 머물렀다. /최성민 기자

김기철 화백, 국제현대미술대전 대상 수상

석채화 기법 '월유봉' 수상

반가운 수상소감이 전해졌다.

석채화의 거장 김기철 화백이 지난 16일, 제46회 국제현대미술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서화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작가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 화백은 김 화백은 천연 돌가루를 안료로 사용하는 석채화 기법을 통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로 지난 40여 년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천연 원석을 직접 쇠질구에 뿔아 안료를 만드는 석채화 기법을 통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석채화는 돌을 곱게 갈아 만든 천연 안료로 색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작가의 정교한 필치와 어우러져 깊이 있는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상 수상작인 '월유봉'은 '빛의 물성'을 구현한 작품으로 관람자의 시선과 조명의 각도에 따라 별빛처럼 반짝이는 자연석이 지닌 고유한 색채와 질감을 섬세하게 구현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김기철 화백은 이번 수상에 대해 "큰 상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산을 오르듯 묵묵히 작업해 온 시간에 대한 격려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걸으며 화려한 기교보다, 석채화가 지닌 본래의 숨결과 시간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북 학부모 최대 민원은 '돌봄 확대'

늘봄 참여율 90.5%

발표에도 '돌봄 공백' 여전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형 늘봄학교'의 높은 참여율을 발표했으나,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은 여전히 '돌봄교실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1·2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90.5%에 달하고, 3학년 참여율은 72.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대규모 학교의 겸용교실을 595실로 확충해 대기 수요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2월 국민의 소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152건으로 전년(2025년 1월 178건) 대비 14.6% 감소했지만,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확대 요구'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90%대의 높은 참여율 수치에도,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과밀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수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장 보육을 통해 오후 5~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수업은

4~5교시로 끝나, 오후 1~2시께 하교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돌봄 공백은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유치원 때는 연장 보육으로 오후 5~6시에 마쳐 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하원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오후 1시에 하교하는 경우도 있어 케어에 어려움이 있다"며 "돌봄을 대신할 방법으로 하교 직후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권익위는 3월 민원 예보를 통해 돌봄 공백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경고하며 '민원주의보'를 발령,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 수요 증가로 일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북교육청은 대기 학생을 연계형 돌봄교실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우선 연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 주얼펠리스 보석 대축제'...4월 1~12일까지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왕궁면 주얼펠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2026 주얼펠리스 보석 대축제'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사)주얼펠리스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에는 주얼펠리스 내 54개 업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다양한 귀금속과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4K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제품

에 대해 최대 30% 특별 할인도 진행된다.

또한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재가공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보석 가공 시연, 체험 프로그램, 익산 보석산업 사진 기록전, 행운의 탄생석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는 보석도시 익산의 경쟁력과 가치를 동시에 알리는 자리"라며 "봄의 정취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반짝이는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유니크베뉴 신규 발굴' 참여 당부

이색 마이스 공간 찾아 내달 13~15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 전북 유니크베뉴 신규 발굴' 공모사업에 관내 역량 있는 시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마이스 전문시설은 아니지만,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독특한 매력을 지녀 기업 세미나, 워크숍, 리셉션 등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유니크베뉴의 고른 분포를 위해 미보유 시·군에 지역균형

가산점(+3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지정 시설이 없는 군산시로서는 이번 공모가 '예비 국제회의지구'로서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행사 공간을 확보할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규 발굴 규모는 도내 전체 6개소 내외이며, 선정된 시설에는 △전북 유니크베뉴 현판 수여 △국내·외 마이스 박람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전북자치도 마이스 행사 인센티브 지원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전북자치도 소재 시설 중 30인 이상 회의 개최가 가능하거나 경협

이 있는 곳으로, 전북의 역사·문화·예술 등 독특한 정체성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컨벤션센터, 호텔, 리조트 등 기존 마이스 전문 시설은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우리 시가 예비 국제회의지구인 만큼, 군산의 근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가산점 혜택이 있는 만큼 관내 민간·공공 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재외한인체육단체, 올림픽 유치 힘 보탠다

재외 동포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탠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8개국 재외한인체육단체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재캐나다 대한체육회·재스페인 대한체육회·재홍콩 대한체육회·재브라질 대한체육회·재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재뉴질랜드 대한체육회·재필리핀 대한체육회·재영국 대한체육회 등이다.

도 체육회는 국외 올림픽 홍보 및 유치 불 조성을 위해 재외 동포들의 힘이 절실한만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또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및 전북도와 한인 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협조 및 홍보 지원 △체육 교류 및 각종 체육



대회 지원 등이다.

특히 도 체육회는 전북을 중심으로 분산 개최하는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비롯해 K-문화·친환경·AI·평화 등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및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필리핀 대한체육회 강정식 회장은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서울하계올림픽(1988), 평창동계올림픽(2018)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올림픽이 반드시 전북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전북체육회도 재외한인체육단체와 국제교류를 더욱 돈독히 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www.sgcenergy.co.kr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룰 것입니다.

SGC 에너지

SGC 이태르건설 SGC 솔루션 SGC 그린퍼워 SGC 디벨롭먼트 SGC 퍼트너스

'군산 맛집' 신규 업소 모집 시작

군산시는 지역 대표 음식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맛집' 선정 대상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맛집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설문

조사, 영업자 직접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 지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신규 맛집 선정 대상은 영업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선정 절차는 업소 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평가 → 전문가 최종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 선정된 업소에는 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시 홈페이지와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소개 등 다양한 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2026년 군산시 청소년상' 후보자 모집...내달 9일까지

군산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청소년상' 후보자를 내달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상은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군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봉사 △효행 △노동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등 7개 부문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접수된 후보자는 군산시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로 문의하면 된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여성새일센터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 쾌거

정읍시 인재양성과 소수 정읍여성새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여성새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우수 기관 및 종사자 2개 분야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식은 전문 인력 양성,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여성 취·창업률 증진을 위해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기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새일센터는 이번 포상에서 우수 기관(전년 대비 우수)과 우수 종사자(김지연 직업상담사)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그동안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1대1 맞춤형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정읍새일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직원 모두가 지역 특성에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업 교육 훈련 고도화와 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노랑·빨강 튼립 물결... 익산 신흥공원에 찾아온 봄

익산 신흥공원 꽃바람정원이 도심 속 봄 풍경을 물들이고 있다.

익산시는 신흥공원 내 꽃바람정원에 식재된 튼립이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튼립은 지난해 11월 구근을 식재해 조성한 것으로, 겨울을 지나며 생육을 이어온 끝에 최근 들어 노란색과 빨간색 꽃이 차례로 피어나고 있다. 튼립은 다음 주 중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 풍경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5-6월에는 붉은 꽃망울이 순차적으로 개화할 예정으로, 계절에 따라 이어지는 꽃 경관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튼립이 선사하는 밝고 생동감 있는 경관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꽃 경관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영국서 생태관광 협력 모색

정헌율 시장 포함 방문단, 지역 기업 유럽 수출 확대 나서

익산시가 지역 기업의 유럽 수출길을 넓히고 왕궁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국 현지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헌율 시장이 포함된 방문단은 지난 29일부터 4월 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익산의 환경 오염 지역을 되살릴 '뉴 에네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 2일 차인 30일 오전에는 런던의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인 뉴몰든 지역을 찾는다. 뉴몰든은 한인 비올만덤이나 유럽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곳이다.

이곳에서 익산시는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코리아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약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 시점에 맞춰 진행돼 그 의미가 크다.



2022년 에네프로젝트 현장 회의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중동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식품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어 김동성 키스틴구 의원을 만나 '코리아타운공익재단'과 문화·경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재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익산시와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31일부터는 콘월 지역으로 이동해 '에네프로젝트'의 창립자인 팀 스미트(Tim Smith)를 만난다. 에네프로젝트는 과거 버려진 폐광을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원으로 탈바꿈시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

을 끌어모으는 생태 복원의 상징이다. 4월 2일에는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코트라(KOTRA) 런던무역관을 방문해 에네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익산 기업들의 유럽 거점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장은 "이번 영국 방문은 우리 식품 기업들의 해외 영토를 넓히고 왕궁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명소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위직 반부패 실천 의지 결집

청렴정책 추진체계 합동회의 개최

군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80여 개 부서를 순회하며 수렴한 '현장 청렴 토크(Talk)'의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외부채감도(재세정) △내부채감도(인사) △조직문화

혁신을 올해의 3대 중점 개선 영역으로 선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재세정' 분야는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조직 내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시청 현안의 사전 공유를 기거나 실생활에 불편이 큰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친환경 전기차 등은 예외 대상으로 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성과 전문성을 명문화하기 위한 '자체감사규칙' 개정 등 실행력 있는 과제들을 병행한다.

군산시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소관 분야의 부패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특히 재세정과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시장 권한대행 김영민 부시장은 "청렴은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구체적인 조직문화 혁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세정 업무의 투명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유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군산시의 청렴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자원안보 위기 대응 지역 사회 동참 유도

정읍시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입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 부문의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

해 마련됐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정읍시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와 종사자 차량이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실생활에 불편이 큰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친환경 전기차 등은 예외 대상으로 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는 청사 주차장 및 진입로에서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방문 민원인 차량의 경우 강제 제한 대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학수 시장은 "중동발 유가 불안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직자는 물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해안 산책로 스마트 안전 강화

CCTV·비상벨·AI 관계 도입으로 범죄 예방

군산시가 내항동 해안 산책로 일대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방범 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3억 2천 7백만원을 투입해 구암동 연안산책로에서 체만식목화관 뒤 산책로까지 약 3.4km 구간과 진입로 인도면 약 3.2km 구간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시스템, 지능형(AI)선별관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신역세권 개발과 함께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해안 산책로가 일몰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2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로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와 함께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은경 교통환경만수순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제적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

4월 17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2026년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탄생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가족의 추억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가족 사진 촬영비 10만원이 지원된다. 촬영은 정읍시 관내 사진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특히 시와 사진 협약을 맺은 8개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과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따뜻한 응원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중량제봉투값 인상 없습니다"

물가안정 최우선...현행 가격 유지

익산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원료 수급 문제로 불거진 '중량제봉투 가격 인상설'에 대해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시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시는 일부 지역의 가격 인상 사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는 가격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량제봉투 가격이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료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봉투 가격이 오르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가격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1인당 100장 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등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자 봉투가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사재기를 막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가동 중이다.

각 판매소에는 전년도 평균 수요량 만큼만 물량을 공급하고, 소비자 1인당 구매량을 '5매 이내'로 제한해 수급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량제봉투 가격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외부 정세와 무관하며 인상 계획도 없다"며 "시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안내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군산시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 지원 △도시락 및 말발판 제공 등 식사지원 △외래 진료시 병원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방·난방 지원, 안전관리, 생활용품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연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교통공원·천변누리공원 새단장

7월 준공 목표

정읍시가 지난 27일 교통공원 야외 무대에서 '교통공원·천변누리공원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노후 공원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그림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 시민 중심의 편안한 여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수목 정비와 관목 식재로 경관을 다듬고 휴식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정비 내용은 맨발 걷기 길 조성, 시니어 맞춤형 운동기구 설치, 녹음·휴게 쉼터 조성, 공원 간 보행 동선 개선, 천변누리공원 내 시설물 도색 등이다. 아울러 노후 조명 교체와 해충 방제 시설 도입으로 야간 보행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설명회 현장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오는 4월 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고창, 지역 사업 청신호 2(題)

김제시, 폐자원 가스화 사업 추진

김제시는 시의회 동의안에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문제 해결과 안정적 공급처를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23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단 4개 시(전남광역시, 경남 김해시, 경기 남양주, 김제시)만 선정하고 국비 29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김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노후 시설에서 반복되던 악취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하수처리 과정의 막힘·과부하 문제를 완화해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전기·열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하고, 장기적인 처리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75억원 규모로, 오는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도비·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시비 부담 213억 원을 50억 원으로 줄여 약 163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방식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는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본 사업과 연계해 2027년 이후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보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지주식김, 화장품으로 만나요"

고창군과 국내 뷰티업체인 '클라우드(브랜드명 유리숲)'가 손잡고 고창 김을 활용한 화장품의 판로확대에 나선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수와 손진수 클라우드 대표, 김현술 심원 만월어촌계장 등이 참석해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지주식 김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출시 관련, 국내외 판로를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지역 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는 고창 지주식 김을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심원 만월어촌계는 고품질 지주식 김 원물의 안정적인 납품을 담당하게 된다.

'유리숲 판매용 김 크림'은 고창 지주식 김에서 추출한 천연보습인자(NMF) 아미노산 성분을 주목해 제품을 개발했다. 천연보습인자(NMF) 아미노산은 아가피부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 성분으로, 피부 장벽 개선과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라우드의 브랜드명 '유리숲'으로 올리브영에 입점 완료했으며, 일본, 홍콩,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클라우드는 고창군의 지주식 김을 활용해 화장품 크림과 팩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창의 우수한 수산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지주식 김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지역 브랜드 가치가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굴해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청보리밭 축제' 4월 18일 개막

5월 10일까지 진행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오는 4월 18일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슬로건으로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막을 올린다.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 광농장 일원에 펼쳐지는 초록 물결 속에서 5월 10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주차요금 1만 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즉시 전액 환급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객은 실질적으로 무료 주차를 이용하면서, 환급받은 상품권을 축제장 먹거리 장터는 물론 고창군 전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주차 공간도 지난해 772대에서 822대로 확충했다. 선동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버스 5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새롭게 확보했으며, 이곳에서 축제장까지 25인승 셔틀버스 4대를 주말·공휴일 상시 운행한다.

청보리밭 한가운대를 걷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체험이 올해 처음 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트랙터 관람차를 타고 가로수 숲길

과 호랑이왕대밭을 둘러보는 코스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개막식은 4월 18일 오후 2시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차요금 임시주차장을 새롭게 확보했으며, 이곳에서 축제장까지 25인승 셔틀버스 4대를 주말·공휴일 상시 운행한다. 청보리밭 한가운대를 걷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체험이 올해 처음 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트랙터 관람차를 타고 가로수 숲길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고창사랑기부제 모금 박차

김제시는 30일 고창사랑기부제 참여 체널을 다변화하고 기부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 고두환)와 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기부자들은 기존 '고창사랑e음' 외에도 민간플랫폼인 '위기브'를 통해 편리하게 김제시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위기브를 통해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지역 우수 담배품을 알릴 수 있게 됐다.

계약 당일 (㈜공감만세는 관내 담배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담배품 공급업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기브를 통해 많은 분이 김제시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며, "기부자들이 공감할 만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담배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브 운영사인 (㈜공감만세 관계자는 "위기브는 2024년 12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 민간 플랫폼 중 풍부한 모금 경험과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 전문성을 입증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제시 고창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나서

내달 10일까지 대상자 모집

김제시는 청년근로자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씩 최대 10개월, 5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김제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기업지원시책 매뉴얼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의료·요양 통합 돌봄체계 구축

부안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안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보건의로,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또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비롯해 일상 돌봄 서비스(가사지원, 병원동행,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읍·면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가동

김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성주 시장과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한 올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과 분기별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정책 추진단'을 부서장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부서장이 '청렴 리더'가 돼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직접 개선하는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아닌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시책으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제도적 안착을 목표로 하는 △1부서·1조별 청비시책을 도입해 각 부서는 '핵심 추진비율'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청렴 기반 마련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직하게 노력하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문화는 반드시 정착될 것"이라며, "확대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본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수소충전소 가격 동결"

농어촌버스 지원 군민 부담 최소화

부안군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소충전소 2개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농어촌버스(수소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

원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제 유가 및 대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 수소충전소는 일평균 60여 대(승용 23대, 버스 15대, 청소차 2대)의 수소차가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가격 동결 조치로 버스 운수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농어촌버스는 노선 단축이나 배차

간격 증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중동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군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수소 가격 동결을 통해 농어촌버스가 앞으로도 군민들의 든든한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문화가 있는 날' 전격 확대 운영

매주 수요일로 대폭 확대 문화향유 기회 확산

김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전북, 고비살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도내 9개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4월에서 오는 12월까지 휴서기를 제외하고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총 15회 운영할 예정이며, 4월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첫 시작을 알리는 4월 1일 수요일에는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홍보부스에서 매주 수요일 확대 운영 내용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이번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다중 집합장소에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취약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획 행사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기고 삶의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취약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산불방지 총력 대응 돌입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대기 체계 유지

부안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공무원 6명의 1이상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한다.

또 산림인접지역 순찰 및 단속을 대폭 확대하고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

을 방송 송출 등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며 산림재난방지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고온 건조한 날씨 및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단 전문교육을 통한 산불 진화 훈련 등 산불에 대비한 대응 역량 극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 규모 확대와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 또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설정돼 농업인들의 초기 금융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실제로 영농에 종사 중인 자에 한한다. 군은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22일까지 서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2일까지 평가 검증 결과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육성사업은 역량 있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창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6월 매주 토요일 확대 운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영)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근무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일 근무는 본격적인 모내기과 양파·마늘 수확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인들이 휴일에도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 밀착형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토요일 운영은 상시편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46종 366대)에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를 통해 농번기 농기계 사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적기 영농 실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토요일 확대 운영과 임대료 감면 연장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완주 'XR 지능형버스' 전국 혁신모델 부상

문체부 간담회서 우수 모델 선정
'이동수단 문화 전환' 혁신 평가
문화선도산단 조성 성과 가시화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의 핵심 콘텐츠인 '확장 현실(XR) 지능형 버스'가 정부로부터 지역 콘텐츠 활성화 우수 모델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 주관 '2026년 광역시도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우수 사례 선정에 따른 성과 발표를 진행하며 완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자리로, 완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전국 4대 우수 콘텐츠 진흥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산업단지의 낮은 문화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수단 자체를 '문화 콘텐츠로 전환

하는 역발상을 시도한 결과다. 군은 수조전기버스에 확장 현실(XR) 기술을 접목한 이동형 문화 플랫폼인 '지능형 버스'를 구축해 산업단지의 물리적 한계를 문화 콘텐츠로 극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 선정 885여 원 규모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머무는 콘텐츠 문화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장류벨트 미식관광' 글로벌 홍보 본격화

외국인 발효·미식 체험 프로그램
SNS기반 참여형 글로벌 홍보 모델

순창군이 전통 장류문화와 지역 미식 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순창 장류의 세계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외국인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인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일정은 1차 4월 3일부터 5일까지, 2차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기반으로 순창의 전통 장류와 지역 대표 음식,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순창 미식관광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10개국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특히 SNS 활용이 가능하고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진=순창군>

프로그램은 순창의 대표 미식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참여형 글로벌 홍보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순창의 장류문화를 미식관광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향후 외국인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와 미식관광 정책 수립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콘텐

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참여형 글로벌 홍보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순창의 장류문화를 미식관광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향후 외국인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와 미식관광 정책 수립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콘텐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난임부부임산부 심리지원 확대

전북권역 상담센터 협력 추진
대면·비대면 맞춤형 상담 제공

순창군이 난임부부와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심리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임 및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해소하기 위한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군은 지역 내 난임부부와 임신부 가운데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을 비롯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자조모임,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심리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온기군 순창군보건소의료원장은 "난임과 임신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가임력 검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 시 이송비 지원 등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일광사, 산신각 불상
점안식 및 낙성 법회 봉행

순창군 적성면 체계산에 위치한 전통사찰 한국불교태고종 일광사(주지 선동 스님)는 지난 29일 '일광사 산신각 불상 점안식 및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 전 원장 도광 큰스님과 현 원장 연수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 스님들과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법회가 열린 산신각은 지난해 6월 화재로 소실됐다가 총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복원됐으며, 낙성 법회에 앞서 바라춤과 승무, 독경, 법문 등 불상 점안식의 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됐다.

한편 일광사는 일제강점기 김세현 스님에 의해 창건된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2014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229호로 지정됐으며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제118호로 지정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디지털남원문화대전'
수정정보 완료

남원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담은 온라인 아카이브 '디지털남원문화대전'의 수정정보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토사 연구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 활용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시는 한국중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디지털남원문화대전' 수정정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남원문화대전'은 남원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 행정, 산업, 생활사 등 지역 전반의 정보를 온라인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역문화 종합정보 콘텐츠다. 2007년 처음 편찬된 뒤 시민과 연구자, 학생, 관광객 등이 폭넓게 활용돼 대표적 디지털 향토문화 자료로, 누리집(namwon.grandculture.net)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5년부터 수정정보 사업을 추진해 이번 사업으로 원고 1,791매를 새로 집필했고 사진 478컷과 동영상 1편도 추가 제작해 콘텐츠를 보강했다. 기존 디지털남원문화대전은 텍스트 2,018항목, 사진 및 동영상 2,453건으로 구축돼 있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다국적 야채체험' 운영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완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젝트 '다국적 생활야채 체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국적 생활야채 체험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야채를 함께 재배하며, 문화와 생활방식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은 완주문화재단 한평공원 내 공간에서 허키마, 오크라, 룡민, 고수 등 다양한 작물을 함께 재배한다. 재배 과정에 맞춰 운영되는 워크숍과 프로그램에서는 작물에 대한 이해와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나누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기 모임 외 기간에는 참여자들이 텃밭을 함께 관리하며, 재배 과정을 재배 일지로 기록한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과 운영 사항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민으로 개인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가족 내외이다. 활동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참여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요건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로컬푸드 정기총회... '334억 매출' 성과 공유

조합원 1000명 참석 발전 논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권승환)이 지난 27일 완주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조합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장과 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2026년 완주로컬푸드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로컬푸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완주군수

표창과 완주군의회 의장 표창, 공로패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지는 2부 본회의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 보고·결산(안) 승인 △결산금 처리(안) 승인 △임원 선출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완주로컬푸드는 지난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매출 334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냈으며,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이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권승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협력하여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정령치 순환버스 전면 정상 운행 재개

광한루·지리산 관광 동선 강화

남원시가 지리산 정령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령치 순환버스'의 전 구간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기점으로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다. 구간 동절기 도로 통행 제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만 '달구'까지만 단축 운행해 왔으나, 이번 제한 해제 조치로 4월부터는 정령치 전 구간을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순환버스는 KTX 남원역 도착



<사진=남원시>

시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차 여행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남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관광투어와 지리산 일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통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봄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전행정 투명성 강화

안전정책 추진 성과 공개

남원시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 과정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시의 재난관리 운영 현황을 시민에게 상세히 알리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남원시는 지난 한 해 재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도 높은 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과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 정비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와 선제적인 안전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제 스마트 홈페이지 오픈 '체감형 축제' 구현

교통정보 통합 제공 편의성 강화
테마코스·찜 기능 맞춤형 동선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공연예술축제인 '제96회 남원 춘향제'가 축제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자 체감형 디자인'과 '스마트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접속하는 시간대에 따라 포스터의 비주얼이 자동으로 변하는 기술 적용이다. 낮에는 남원의 화사한 봄 풍경을 담은 밝고 활기찬 포스터가, 밤에는 화려한 야경과 축제의 낭만이 어우러진 야간 포스터가 나타나 춘향제의 낮밤 매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차와



<사진=남원시>

이동 문제 해결에도 집중했다. 남원시 이동 정보어플의 QR로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정보를 전달하고, 시내 곳곳의 공연주차장과 축제 기간 특별 운영되는 임시주차장 위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의 실시간 노선도 주요 거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해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차량통

제구간은 물론, 최근 이용이 많은 키보드 거처대 위치까지 지도 기반으로 상세히 안내한다.

방문객의 취향에 맞춘 4가지 테마 코스(스킵 △결기 △사랑 △전통)을 제안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일정과 기호에 맞춰 원하는 행사를 미리 '찜'해두는 등 자신만의 최적화된 축제 동선을 계획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피지컬AI 추진단 출범...1조 실증단지 시동

이서면서 사업추진단 발대식
산학연관 참여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군이 이서면 일대를 대한민국 피지컬(Physical) 에이아이(AI)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30일 완주군은 이서면 콩쥐팍쥐도서관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군의회 의장, 김재천 부의장, 심부건 의원, 전북대와 우석대 등 학계 관계자, 캠퍼스융합기술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피지컬 에이아이 사업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9월 추진단 구성에 이어, 실제 사업 대상지인 이서면 주민들에게 사업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성 있는 사업 추진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발대식과 함께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는 이서면 전북대 부지 일원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할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에이아이 실증단지' 조성 계획과 향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상세

히 공유했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 6,0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 민간 2,500억 원으로 추진되며, 지방비는 전북도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추진단 발대식은 완주군 미래 먹거리 육성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완주군이 피지컬AI 전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영농철 맞아 조기 진료 실시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진료한다.

이에 따라 진료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진료시간 변경은 영농철 아침 일찍 의료원을 찾는 내원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지역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며, 영농철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대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조기 진료료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자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선정 영예 조직의 행정 역량 지속적으로 높여 호평

무주군이 '2025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무주군은 △의명 신고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승수행

지원 관련 규칙 및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직의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첫걸음 복지포인트'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꼽혔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들이 '적극행정' 문화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

게 일하며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그동안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져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군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며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군민 중심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성과로 입증되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2억 8천만원 지원

미래인재 120명 선발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 27일,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장학생 선발은 지난 20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 등 총 12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총 2억 8,500만원 규모의 장

학금이 지원되며, 대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박현숙 임실 부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 모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임실군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군은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 대성황

4월말·5월초 방영 예정

임실군이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 본선 녹화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화 현장에는 3천여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본선 장소인 장미원 광장을 가득 메웠다.

본선 무대는 사회자 남희석의 재치 있는 진행과 함께 치열한 예심을 뚫고 올라온 최종 15팀의 개성만점 출연자들이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여기에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과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해 김성환, 황민우, 염유리 등 국내 정상급 초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은 임실N장미축제(5.28~5.31) 전인 4월말이나 5월초에 방영될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본선 무대인 장미원 200여 종 2만 2,000여 주의 장미가 식



임실군이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 본선 녹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임실군>

재된 공간으로, 비록 아직 장미가 만개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유럽풍 경관과 어우러진 정원의 정취는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썩썩썩' 건강캠페인 진행

장수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내 학생들의 올바른 위생습관 형성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름 썩썩 손을 썩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복지학교, 장애인복지학교, 전북유니테크고등학교, 백화고등학교 등 4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등교길 시간을 활용해 현장 중심 교육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캠페인에서는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칫솔질 요령을 안내하고, 구강위생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칫솔·치약 세트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손씻기는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하며, 올바른 칫솔질은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정부자원위기주의 단계 발령... 맞춤형 5부제 시행

진안군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진안형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3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 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에 선순수범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진된다. 군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과 긴급한 행정 현안을 꼼꼼히 반영한 맞춤형 지침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큰 특징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 차량 예외 적용이다.

군은 최근 확산세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량과 봄철 산불 감시 및 진화 차량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현장 대응 차량을 5부제 제외 대상에 포함해 위기 대응력을 유지한다. 또한, 원거리 출퇴근 공직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3인 이상 카풀 탑승 차량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군청 본청은 물론 진안군의료원, 진안형 삼연구소 등 모든 산하기관이 이번 5부제에 동참한다. 다만,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은 환자와 보호자 차량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군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제23회 전국승마대회 성료

승마산업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수군은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승마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수 250여명과 마필 250여 두가 참가해 장애물 110class부터 130class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특히 'KRA CUP CSU-B Seoul 2026' 대표 선수 선발전이 함께 열려 대회의 위상을 높였으며, 장애물 국산마 110class 종목을 통해 국제대회에 출전할 유망 선수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루며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고,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며 전국 단위 체육행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수군은 승마산업



가자들이 기량을 겨루며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고,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며 전국 단위 체육행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수군은 승마산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스마트한 물관리로 이상기상 피해 극복!

노지배추·하우스수박 '정밀 관수 시범사업' 추진 1ha당 4천만원 지원

무주군은 '채소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한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기상 상황에 맞춰 작물에 필요한 최적의 물 필요량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규모는 1ha당 4천만 원으로, 노지배추와 하우스 수박을 재배하는 대상 농가에 △자동 관수 제어 장치, △기상 관측 센서, △스마트폰 연동 원격 제

어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특히 물을 주는 것은 물론, 물비료를 공급하는 관비 시스템까지 연계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과 비료 사용량 최적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험이나 단순 타이머에 의존했던 관수 방식이 일사관망과 강우량 센서 활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진다.

무주군에 따르면 '노지 배추'의 경우는 비가 내리는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불필요한 관수를 차단하고, 가뭄 시에는 부족한 수분을 즉각 보충해 결구 부족이나 석회 결핍 등의 생리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우스 수박'은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일사량을 측정해 증산량에 맞춘 정밀 관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과실 당도를 높이고 무게를 균일하게 해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준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독작목팀장은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물관리에 따라 품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노지배추'와 '하우스 수박' 재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확산시켜, 기상재해에 강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여름철 대비 종합점검

저수지배수시설 포함 전반 '양호'

장수군은 해빙기 및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지난 2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온실 구조물과 내부 환경제어 설비를 비롯해 전기·급수·환기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단지 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및 용수시설 △유수지 △배수로·집수정 등 수자원 및 배수시설까지 포함한

종합점검을 병행했다.

특히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구조물 변형 가능성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시설물 균열 여부와 배수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등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전북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영농체험 등 농산촌생활 경험

무주군이 '전북(무주)에서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를 오는 4월 3일까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그린대로'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4월부터 3개월(1기 / 2기, 9~11월 2개월) 간 무주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체험과 지역탐색, 주민 교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영농체험은 '사과'와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귀농형 과정으로, 주거·교육·체험이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일자리 체험 등을 통해 실제 귀농·귀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참가자들이 마을 굴기 가꾸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북에서 살아보기는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인 만큼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이 우수한 무주에서 귀농·귀촌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고향사랑기금 활용 4월 본격 시행

임실군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이며, 소중함 기부금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및 '실질적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은 1일 최대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청인 또는 간병협회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 본인인 임실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며, 진단서 및 간병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구이면, 벚꽃곶 맞이 채비 '봄맞이 대청소'

완주군 구이면이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주요 사회단체 및 직원들과 함께 구이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며 깨끗한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이면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사회단체 회원 80여 명은 지난 27일 합동으로 구이저수지 주변 하천 쓰레기를 치우고 주요 산책로의 방치된 폐수목 등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이번 활동은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건조한 봄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담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구이면 내 49개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마을별 일제 대청소 날'을 정해 마을 주변과 소하천, 농경지, 도로변 등 그동안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 구석구석을 정비했다.

전 민면이 참여해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청정 구이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을 보탤다.

/완주=김명근 기자



장수 산서면, '산서와 여우와 그리운!' 문학행사 성료

장수군 산서면은 지난 28일 '산서 문학이 있는 날'을 기념해 개최한 '산서와 여우와 그리운!' 행사가 주민과 문학인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산서와 여우와 그리운!' 행사는 안도현 시인이 산서고등학교 재직 시절 산서를 배경으로 집필한 시집 '그리운 여우' 속 작품 13편을 시판으로 제작하며 시작된 산서면의 대표 문학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안도현 시인과 함께 생명과 일상의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는 복효근 시인이 초청되어, 산서의 봄날 오후를 문학의 감성으로 물들였다.

이날 두 시인은 시가 삶에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의미, 그리고 산서면이 지닌 문학 가치에 대해 주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시를 매개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문학이 주는 치유와 소통의 힘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북중 강서준·김수민 학생, 취약계층에 식료품 전달

장학금과 용돈 모아 마련

고창북중학교 강서준·김수민 학생(2학년)이 부안면 주민행복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 준비한 라면, 햇반 등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아이들이 받은 장학금과 용돈을 모아 마련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식료품은 부안면 내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골고루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강서준·김수민 학생은 "우리가 받은 장학금이 더 가치 있게 쓰일 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기훈 부안면장은 "아이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며, 기부해 준 물품은 꼭 필요한 가정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 종합민원과-고창 해리면 상호기부... 지역상생 실현

양기관 공무원 자발적 참여

임실군청 종합민원과(과장 홍진희)와 고창군 해리면(면장 홍정묵)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상호기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양 기관 공무원 각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대 지자체에 각각 150만 원씩을 기탁했으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방문과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두 부서장의 뜻이 더해져 추진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임실군수는 "상호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호기부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새마을축구단, 창단 50주년 맞아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9일 김제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인 김제새마을축구단(회장 김태현)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기탁은 '김제새마을축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 및 제36회 김제새마을축구단 회장기 축구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돼, 축구단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김제새마을축구단 김태현 회장은 "축구를 통해 쌓아온 화합과 협동의 가치를 지역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원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김제를 대표하는 축구 동호회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 지역 청년들, 사랑의 배식 봉사활동 펼쳐

김제 지역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가운데, 김제시 성장전략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30일, 청년단체 땀스마트(대표 최아연), 선암(대표 정지환), 맹스마트(대표 박지현) 소속 청년들과 성장전략실 직원들이 함께 김제천사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른 아침부터 급식소를 찾아 밥

은 미소와 진철한 손길로 한 분 한 분께 안부를 전하고 배식, 식사 보조, 환경 정비까지 맡으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며 단순한 급식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 활동을 통해 김제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제=은봉기 기자



익산 황등경로당, 개소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익산시 황등면은 황등경로당이 개소 100주년을 맞았다고 30일 밝혔다.

황등경로당은 1926년 4월 15일 설립 이후 100년 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28일에는 개소 100주년을 맞아 경로당의 오랜 역사와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별한 행사도 열렸다.

기념 행사에는 채수훈 황등면장과 류창현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0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또 참석자들은 경로당의 연혁을 되돌아보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류창현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은 "100주년을 맞이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어르신 여가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왕정동, 주거취약가구 생활환경 개선 활동 실시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규)는 '1일 1가구' 방안을 통해 지역 내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중장년 1인 가구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방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제도적 지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보일러 고장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주거지 내·외부에 물품이 방치되어 위생 및 안전이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왕정동 맞춤형복지팀은 수호천사 봉사단과 협력하여 실내 청소 및 정리정돈, 마당 내 방치 물품 수거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전략입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JP 유준테크 Tel_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qp 대흥정판사 Tel_063.254.0056~7 E-mail_hi056@hanmall.net

AP 아트엔포토 Tel_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대흥정판사

〈一事一言〉



전북 동물의약품 특구, 반려동물 시대를 여는 출발점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세 집 중 한 집 반려동물...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의 취미가 아니다. 약 590만 가구, 국민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개와 고양이만 따져도 7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세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이라는 표현조차 새삼스럽지 않다. 산업과 정책 역시 이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변화의 신호다. 아직 최종 지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국가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전국 다수 과제 가운데 소수만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준비와 잠재력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려동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

하고 있지만,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려동물용 의약품은 상당 부분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면, 그 격차는 결국 지역과 국가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구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말 그대로 기존의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이 이를 통해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자가백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익산·정읍, 인프라 강점** 특히 전북은 이미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연구와 시험, 검증 기능이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여기에 특구 지정이 더해진다면, 기술 개발에서 사업 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생활 구조를 바꾸고 있는 요소이며, 이에 대응하는 산업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래 산업 중심지 향해** 물론 최종 지정까지는 아직 남아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동시에 자신감이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인 지역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

다. 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영역으로 들어섰고, 이를 선점하는 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반려동물은 '특수한 취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 형태다. 그 변화의 속도에 산업과 정책이 발맞추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전북의 동물의약품 특구 추진은 그 흐름 위에서 있는 시도이며, 충분히 환영받아야 할 방향이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사설

방산혁신클러스터, 전북 산업지형 바꿀 기회다

전북자치도가 방위산업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삼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첨단복합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지역 산업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일한다. 도와 시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연결'과 '확장'이다. 소재 연구개발에 머물렀던 기존 역할을 부품과 완제품으로 확장하고, 산·학·연·관이 긴밀히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 분야는 높은 기술 장벽과 폐쇄적인 시장 구조로 인해 개별 기업의 단독 진입이 쉽지 않다. 전북은 이미 탄소소재 산업에서 축적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인프라, HS효성첨단소재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집적,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지속적 투자로 형성된 산업 기반은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여기에 현대로템 등 방산 분야 핵심 기업들과의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첨단복합소재의 국방 적용 가능성은 한층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고리'를 얼마나 견고히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과 수익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수요를 반영

한 연구개발, 신속한 인증·시험 체계 구축, 그리고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는 이번 클러스터 성공의 관건이다. 방위 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가 강하지만,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들이 초기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 기술 이전, 판로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기업이 자리 잡아야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현대로템 투자유치 성과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투자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규제 완화, 입지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도전은 전북의 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협력 네트워크와 실행 역량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이다. 산학연 협력을 한층 더 촘촘히 엮고 기술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이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의 실천에 달려 있다. 준비된 기반 위에 과감한 실행이 더해질 때, 전북은 명실상부한 방산 첨단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시

목련 / 이재무

내 몸 '동그렇게 구부려
그대'무명치마 속으로
굴러놓고 봄 한철 흥여처럼 앓다가
사월이 아깝게도 다갈 때
나도 함께 그대와
소리 소문 없이 땅으로 임적했으면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거쳐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별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길 위의 식사,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가 작품이 있다.

문화재 열전



임실이도리미륵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석조, 불상
-지정일 - 1993년 8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임실군 봉황10길 109 (임실읍, 운수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김제시, 제54회 보건의날 기념

“제3회 건강체험마당” 개최

김제시가 제54회 보건의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4월 3일 김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 일대에서 ‘제3회 김제시 건강체험마당’을 개최한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가 추구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이다.

“체험 삼아 해본 체지방 측정 후 전문가 상담을 하고 ‘마른 비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겉보기에 말랐다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체력증진실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 매일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작년 건강체험마당에 참여했던 김제 시민 A씨의 사례는 이번 행사가 지향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의 핵심을 보여준다. 봄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기회, 건강체험마당 행사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건강, 체험으로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

오는 4월 3일 김제 실내체육관 주차장 일대

■ 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환경’의 초석
제3회 건강체험마당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보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AI 기술을 탑재한 보행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보행 패턴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개인별 맞춤 코칭을 제공하고 AI 인지훈련 로봇을 활용한 체험 부스 운영으로 고령화 시대 치매 예방 등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을 직접 체험

하게 한다. 또한, 뇌파 및 맥파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총출동-현장 중심의 전문 상담·체험 체계 구축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보건 의료계와 이끄는 전문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이다. 우석대 한의학과 교수들의 한방 건강 상담과

김제시약사회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약 상담뿐만 아니라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의 심층 건강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보건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북 지역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전문가 지도로 물리치료 체험, 신체기능 검사, 혈액 및 성분 분석 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과학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 30여개 부스,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약체
제3회 건강체험마당은 총 33개 테마 부스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예방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관 나이 측정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치과공중보건사업팀과 한방공중보건의사업팀이 공동 참여하여 불소 도포, 시린 이케어, 이침 체험 등 일상 밀착형 건강 솔루션도 제공하고 우석대학교 미술치료과 등 신규 기관 9곳이 새롭게 합류하여 스트레스 점검과 미술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 건강까지 총괄해 나갈 예정이다.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밀착형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시민들이 평소 체감하기 어려웠던 전문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내에서 쉽고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향토기업인 ㈜참고을(대표 김윤권)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노인 무료 안(眼) 검진’ 부스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참여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 치매 극복 걷기대회 및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문화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대회’는 약 3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공원 1.8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유·아동들이 직접 그린 금연·절주 포스터 전시와 ‘인생네트’, ‘피크닉 감성 휴게존’ 등 문화와 건강이 결합된 다채로운 콘텐츠가 시민들을 맞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제3회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행사는 제54회 보건의날을 맞아 시민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기관, 대학, 기업 등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견고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